논어 19편 자장 22장 · 원문·풀이

# 衛公孫朝問於子貢曰：「仲尼焉學？」子貢曰：「文、武之道，未墜於地，在人。賢者識其大者，不賢者識其小者，莫不有文、武之道焉。夫子焉不學？而亦何常師之有？」

독음 · 위공손조문어자공왈 중니언학 자공왈 문무지도 미추어지 재인 현자지기대자 불현자지기소자 막불유문무지도언 부자언불학 이역하상사지유

쉬운 풀이(요약) · 문왕과 무왕의 도는 사람들에게 나뉘어 남아 있었다. 공자는 누구에게서든 배우므로 정해진 한 스승에만 매이지 않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衛 막을 위 위 / 公 공변될 공 공 / 孫 손자 손 손 / 朝 아침 조 조

問 물을 문 문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

曰 가로 왈 / 仲 버금 중 중 / 尼 여승 니 니 / 焉 어찌 언 언

學 배울 학 / 文 무늬 문 문 / 武 굳셀 무 무 / 之 갈 지

道 길 도 도 / 未 아닐 미 미 / 墜 떨어질 추 추 / 地 땅 지 지

在 있을 재 재 / 人 사람 인 / 賢 어질 현 현 / 者 놈 자

識 알 식 식 / 其 그 기 / 大 클 대 대 / 不 아닐 불

小 작을 소 소 / 莫 없을 막 막 / 有 있을 유 / 夫 지아비 부 부

而 말이을 이 / 亦 또 역 / 何 어찌 하 하 / 常 항상 상 상

師 스승 사 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